

“호남에 큰 빛” 국민의힘 광주서 ‘친호남 행보’ 진정성 호소

주호영 “현안과 국비 예산 확보 몸으로 실천”

정운천 “진정성, 실천력으로 보여주겠다”

이용섭 “국민의힘, 대통합의지 읽힌다” 화답

내년도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호남지역 현안과 국비 예산 쟁거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천 황보승희 최형두 예결위원 등은 27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 등은 모두 발언에서 광주지역 현안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

혔다.

주 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 광주에 큰 마음의 빛을 지고 있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하는 지역이라 명심하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냥 명목상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일정 시간마다 방문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광주에서 무엇을 언제 찾아가 도울 것인가, 속속 살고 있

다”면서 “국민통합위에서 하는 일도 정책위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도 “광주지역 현안, 발전 다지는 데 계기를 마련하는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광주발전에 큰 힘되는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예결위원이기도 한 정운천 위원장은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하며 진정성을 실천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직접 광주에 온 것은 친호남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서 “어제 밤 늦게 까지 국정감사를 한 예결위원인 최형두 황보승희 의원이 예산결산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참여하



국민의힘-광주 예산정책협의회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리기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게 됐다. 실천으로 예결위원들이 뒷받침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서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8월1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국립묘지 참배는 큰 의미 두지 않았는데, 호남

동행단, 잇따라 광주 방문 등에 이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는,국민의힘의 대통합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기동취재본부

국민의힘 “與에 공수처 양보했다…라임·옵티 특검하라”

“與, 야당 비토권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양보했다”며 “4년째 공식으로 방치된 대통령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할 것을 주

장했지만 이마저도 양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려며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라며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야권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

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한다”며 “야당의 추진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하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면서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뉴스스

김태년 “野, 라임·옵티머스 억지 특검 주장…민생 포기 선언”

“서민·중산층 재산세 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에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 사기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하

는 여론 실제 로비설도 근거가 없고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고 있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받

동안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논의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與, 윤석열에 공개 불만 “해임건의 가능해” “사퇴해야”

민주당 의원 “우리가 ‘그만두라’할 필요 없어”

尹보다 공수처 주력 “野 방해 고려 법 개정 병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내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에 법무부 장관 차원의 해임건의부터 사퇴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나서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 ‘체급’을 키워줄 필요는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본인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을 방해마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

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정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종합감사관 차원의 해임건의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바 있다.

통상 법에 규정된 해임건의는 총리 혹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을 뜻하나, 이 경우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정치적인 차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이가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다.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뽀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24일과 8월에도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같듯이 있거나 뭔가 총독,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상기시켰다.

해임건의도 추 장관의 선택지일 뿐 나서서 요구해 윤 총장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여당 법사위원들로서 윤 총장의 임기 얘기는 안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그만두라, 마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 내에서 야당 추천 인사들이 방해만 계속 한다면 일정 정도의 제한을 뒤탈 것이다. 협상은 하지만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